

“디지털 교육 몰입도 극대화... 동남아 넘어 글로벌 정조준”

도전! 스타트업UP
에듀테크 기업 ‘엘리스그룹’
김재원 대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솔루션과 이동형 모듈러 데이터센터(PMDC)를 제공하며 ‘글로벌 B2B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토종 스타트업이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엘리스그룹 김재원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김 대표가 공동창업자들과 2015년 말 설립한 엘리스그룹은 국내를 넘어 현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공략을 시작했다. 지난해엔 싱가포르에 법인도 설립했다.

엘리스그룹은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엘리스스쿨’, 취업준비생과 재직자를 위한 ‘엘리스트랙’, 기업·기관 등 B2B 고객을 위한 ‘엘리스엔터프라이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 가운데 ‘엘리스LXP’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AI활용 온·오프라인 교육·솔루션 국내 넘어 싱가포르·인니 시장 진출

올인원 AI교육 플랫폼 ‘엘리스 LXP’ 기업·기관 4100곳, 이용자 193만명

이동형 모듈러데이터센터 ‘PMDC’ 냉각 최적화·전력 최소화 등 장점

김 대표는 2일 “교육 현장이 디지털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수율을 높이고 몰입도를 극대화할까를 고민했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엘리스’가 탄생했다”면서 “엘리스LXP는 몰입도 높은 비대면 학습 환경과 교육생 학습관리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올인원(all in one) AI 교육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

엘리스LXP는 ▲온라인 인터랙티브 학습 환경 ▲올인원 라이브 강의실 ▲로그인만 하면 코딩이 가능한 웹 기반 학습 환경 ▲교육성과를 높이는 교육생 관리 시스템 ▲교육생 맞춤관리 질의응

답 솔루션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현재 엘리스LXP를 도입한 곳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내 대기업과 대학 그리고 공공기관 등 약 4100곳에 달한다. 이용자도 193만명을 넘었다.

김 대표가 창업한 엘리스그룹은 2015년 창업 이후 지난 8월 현재까지 누적 매출이 1000억원을 넘었는데 대부분이 엘리스LXP에서 나왔다.

김 대표는 “이젠 연 매출 1000억원에 도전할 때”라면서 활짝 웃었다.

동남아시아 공략을 위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을 함께 넘보고 있는 것도 엘리스LXP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엘리스그룹은 엘리스LXP를 좀더 효율적으로 구동하기 위해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한 PMDC도 개발했다.

김 대표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GPU(그래픽처리장치)가 더 많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AWS(아마존웹서비스)와 같은 기존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는 가격이 비싸고

전력도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면서 “우리가 컨테이너 형태로 개발한 PMDC는 소형이어서 이동이 편리하고 GPU에 최적화된 냉각기능과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등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다. 물론 가격도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규모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대학 연구실 등으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스그룹은 올해 상반기에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벤처투자자회사 벤틱스그룹 등으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금은 AI 인프라를 구성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2020년엔 삼성벤처투자, LB인베스트먼트, 산업은행, 알토스벤처스로부터 총 105억원의 시리즈B 투자를 받기도 했다. 엘리스그룹의 누적투자유치금액만 2016년부터 진행된 시드부터 최근의 시리즈C까지 총 335억원에 달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독자경영 본격화

이사회서 임종윤 선임안 등 부결
“전문경영인 체제, 목표이자 비전”

한미약품이 전문경영인 박재현 대표 이사(사진)를 중심으로 한 독자 경영을 본격화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2일 열린 이사회에서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의 단독대표이사 선임 안건과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교체 및 동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이사회 멤버이자 감사위원장인 김태윤 사외이사는 “전문경영인 체제는 한미뿐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 걸맞는 경영을 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지향해야 할 목표이자 비전”이라며 “오늘 이사회 결의는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임직원 모두가 세계 최고의 R&D 중심 제약회사를 지향하는 한미약품이 안정적 경영을 이루고 거버넌스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 개최는 임종윤 사내이사



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29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그동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에 위임해 왔던 인사 부문 업무를 독립시키고, 법무팀 등 여러 부서를 신설하는 등 ‘독자 경영’을 적극 추진한 것에 대해 임종윤 사내이사는 공개적으로 반발해 왔다.

또 임종윤 사내이사는 박재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이사회 의장)을 임명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박재현 대표 직위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이사회를 통해 임종윤 사내이사의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박재현 대표의 거취에도 변동사항이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이번 이사회 결의를 시작으로 지주회사와 차별화된 독립 경영을 강화한

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미약품은 ‘글로벌 한미’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 매진할 계획이다. 거버넌스 이슈와 무관하게, 한미약품이 현재 추진 중인 신약개발, 국내 영업, 수출 등 다양한 사업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독립된 계열회사가 높은 성과를 지속 창출해야만 지주회사도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 업계는 이번 박재현 대표의 독자 경영 선언을 한미약품 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비롯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형 선진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의 첫 단계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신동국·송영숙·임주현 3자 연합은 우호 지분까지 더해 한미약품 그룹 지분의 과반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한미약품 그룹 경영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보다 우세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경동나비엔은 지난달 30일 경기 일산 킨텍스서 관계사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Vision 50-50’ 선포식을 개최했다. 프로그램 중 조직문화 토크쇼에 참여한 경동나비엔 김종욱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동나비엔

“글로벌 톱티어 생활환경 솔루션사 도약”

경동나비엔 ‘비전 50-50 선포식’ 핵심전략 ‘3P 옵티마이즈’ 설정 4300억 투입 공장 10만 평 확장

경동나비엔이 ‘3POptimize’를 미래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제품(Product), 프로세스(Process), 조직운영(Personnel)의 최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겠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Optimize’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한 생활환경 파트너(Optimize Living & Environment)’라는 비전도 구체화했다.

경동나비엔은 경동원 등 관계사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Vision 50-50’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글로벌 Top Tier 생활환경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을 선포했다.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비전선포식은 2028년 경동나비엔 창립 50주년, 2031년 경동원 창립 50주년을 각각 앞두고 50년으로 나아가는 비전 달성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새 BI에는 불, 물, 공기와 흙 등 필수 요소를 다루는 차별화된 기술로 온도,

습도, 청정 등 고객의 일상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최적의 생활환경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더 나아가 콘덴싱, 인공도양을 이용한 옥상녹화 등 친환경 기술력으로 인류의 미래에 필요한 최적의 지구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뜻도 포함했다.

경동나비엔은 생산기지인 경기 서탄 공장을 확장하며 ‘3P Optimize’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3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 2026년까지 10만 평으로 공장 규모를 확장하는 한편, 현재 200만 대 수준인 생산량을 439만 대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로 제조업의 혁신을 이끄는 공장을 의미하는 ‘등대 공장’ 등재도 업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경동나비엔 김종욱 대표는 “비전선포식이 이제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경동나비엔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준비한 전략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글로벌 톱티어(Top Tier) 생활환경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온라인 e쿠폰서비스 첫 감소... 티메프 영향

통계청, 7월 온라인쇼핑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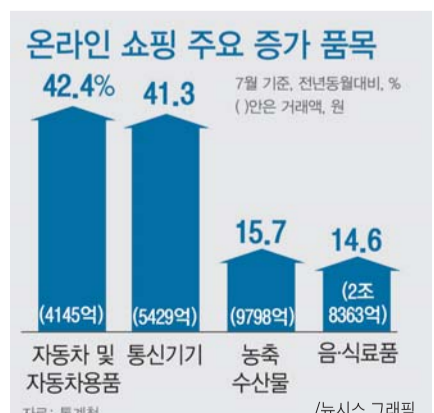
티몬·위메프 사태의 영향으로 온라인 e쿠폰서비스(무료 또는 할인 쿠폰) 거래가 역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9626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5.4%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음·식료품(14.6%), 음식서비스(8.9%), 생활용품(11.1%) 등에서 증가했으나 e쿠폰서비스(-31.0%)는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른바 ‘티메

프 사태’에 따른 위축으로 풀이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상품권 사용처가 막히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아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이나 해피머니 상품권 등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 수가 1만3000명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e쿠폰서비스가 많이 줄었다”며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감소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에 반해 음식서비스 거래액(2조



5187억 원)은 역대 1위”라며 “온라인 쇼핑이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인데 음식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달에는 최대 거래액을 찍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